

# 전남 바다 '40년의 변화' 한눈에 본다

## 해양수산과학원, '전남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 발간... 어업단체 등에 배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을 발간, 어업단체와 양식업계, 유관기관 등에 각각 배포했다.

전남 중부해역의 경우 고흥반도와 순천만, 여자만, 득량만 등을 포함한 해역으로 김 등 해조류를 비롯 어류, 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 생산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변화된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수산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0년 주기로 '연안환경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남 중부해역 연안환경정보 40년'은 2011년 발간된 '연안환경정보 30년'의 증보판이다.

책자에는 지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기온·강수량·풍향·태풍의 영향 등에 대한 기상정보 ▲월별 수온과 염분에 대한 해양정보 ▲지점별 용존산소량 및

부유물질농도 등 수질정보 등이 담겨 있어 지난 40년간 중부해역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책자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ofs.jeonnam.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연안환경에 대한 정보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한 어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책자가 해양환경 변화와 적조·태풍·고수



온 등 자연재난 대응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연안의 해양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어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내 해역 120개소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김정관 기자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세 번째 순서로 Hyun's Dance Project의 '가을밤 댄스판타지'를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송한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빛고을시민문화관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가을밤 댄스판타지'

### 22일 광주문화재단TV 통해 Hyun's Dance Project 공연 송출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을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세 번째 순서로 Hyun's Dance Project의 '가을밤 댄스판타지'를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송한다.

'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적 요소가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일상이 달라지면서 많은 이들

이 겪는 현상에 대해 무용수들의 섬세한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Hyun's Dance Project는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무용의 특징을 접목한 신선하고 다채로운 무대로 60분을 꽉 채운다. 이날 공연에는 무용수 김현재, 김유진, 김선민, 장하영, 김민경, 이효민, 정아영이 출연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https://www.youtube.com/user/gjcforkr>)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오복 기자 boh@

## 심폐소생술·생활안전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개최

### 북부여성의용소방대·남부여성의용소방대 1위... 전국대회 출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5일 남부소방서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는 북부여성의용소방대가, 생활안전 분야는 남부여성의용소방대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업무 보조 역할이 넓어짐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능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

련됐다. 심폐소생술 분야는 2인1조로 총 10명이 참가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을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상황을 전개한 북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이원임·문숙 대원이 1위로 선정됐다. 이들은 주제전달과 숙지도, 강의 전개 방법, 강의 기술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2월에 열리는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재섭 기자

## 5·18기록관, 12월27일까지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

###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5·18민주화운동 시리즈전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0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대미를 장식하는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 '주권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으로'를 국립5·18민주묘지 내 추모관 3층에서 개막한다.

12월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인권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12개국을 선정, 관련국가 기록

물 복본 전시부터 소리부스, 사진과 영상, 시민 체험 전시물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인권이 국가주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속에 기록돼 있는 여성들의 활동상부터 아르헨티나 실종자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난징대학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등 인권운동의 핵심적 사건을 만나볼 수 있다. /윤규진 기자

## 전남종자관리소, 내년 원종 생산 전국 35% 담당... 전국 1위 수성

전라남도 종자관리소는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이 확정된 '2021년도 동계작물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따라 내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종 생산면적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종'이란 농가에 실제 보급되는 '보급종' 종자의 이전 단계 종자를 말한다.

내년 전라남도의 원종 생산면적은 전국 총 76ha중 35%인 27ha에 달하며, 지난해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전북 16ha, 경남 13ha, 충남 7.5ha 경북 6ha 등 순이다. 종자관리소와 같은 원종생산기관은 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돼 있다. 품종별로 쌀보리 3개(흰찰쌀, 새쌀, 새찰쌀)를 비롯 맥주보리 1개(호품), 밀 3개(금강, 새금강, 백강) 등 총 7개 품종이 생산될 계획이다.

내년 생산면적은 올해 25ha보다 2ha 증가된 것으로, 쌀보리는 최근 보리 생산과잉에 따라 재고를 감안해 5ha가 축소됐다. 밀은 국산밀 생산 및 소비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보급종 공급량 확대가 예상돼 7ha가 늘었다. 특히 제빵용으로 인기가 높은 백강밀 품종이 내년 첫 도입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맥주 양조의 주원료로서 대부분 외국 수입에 의존하던 맥주보리도 제주와 더불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어 국산맥주보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라남도 종자관리소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나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종자관리소 관리농지의 90%가 모인 나주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124억 원을 투입해 시설 구축을 추진중이다. /박은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17일 온·오프라인 병행 토론방식으로 광주공동체 실천의제 선정을 위한 '2020 광주시민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 광주시민이 함께 실천하고 싶은 의제를 토론·투표했다. /광주시 제공

## '기후위기 대응정책' 광주시민 실천의제 선정

### 광주시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토론·투표로 최종 채택 의제 범시민추진단 구성해 실천방안 구체화 및 현실화

광주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공동체를 위한 시민 실천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17일 온·오프라인 병행 토론방식으로 광주공동체 실천의제 선정을 위한 '2020 광주시민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 광주시민이 함께 실천하고 싶은 의제를 토론·투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71개 제안에서 시민들의

공감으로 10대 예비의제를, 다시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3대 후보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선정된 3대 후보의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마을문화공간 자유의 숲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식품안전보호 구역 확대)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 3대 후보의제 제안자들은 제안의 필요성과 광주 시민이 광주공동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고, 참여한 시민들은 소그룹과 전체토론

을 거쳐 과제의 중요도,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숙의·토론한 후 가장 광주다운 실천의제를 온·오프라인 투표로 진행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2020 광주시민총회의 새로운 변신과 처음 시도된 비대면 운영방식에 대해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많은 호평이 이어졌다.

선정된 최종의제는 이후 '의제 범시민추진단'에서 실천방안을 구체화, 현실화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틀린그림 찾기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